

정부 “日오염수 이달 하순께 방류...한일 논의사항 아냐”

일일브리핑서 日언론 보도 언급 한일 실무협의를도 논의 없을 듯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7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양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 시된다.

교도통신도 북극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8월 하순에서 9월 전반 사이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이 구체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잇따라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20일에 귀국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구연 차장은 관련 질문에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상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날 협의 수석대표는 양국 외교당국 심의관급 인사가 맡는다.

박 차장은 이날 협의에서 방류 시기도 논의되는지 묻는 말에 “회의 자체가 실무 회의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실무협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가 요청한 기술적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매듭짓는 후속 회의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참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 요구한 내용,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일본 측에 했던 내 가지 기술적 제안 등이 이날 실무 협의의 주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진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 방류 중단 및 한국과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프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방문해 수문장 교대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태풍에 잼버리 비상계획 점검...“숙소·K팝공연, 수도권 검토”

서울 시내 대학 기숙사·연수시설 구청 체육관 등 총동원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함에 따라 ‘2023 세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강구에 나섰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비상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뀔 이번 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컨틴전시 플랜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

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만금 야영장에는 약 170개국에서 온 3만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남아 있다.

정부는 스카우트 대원 전원을 한반도가 카눈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기 전인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3만6000여명을 수도권으로 대피시킨다고 밝혔다.

인원이 대규모인 만큼 서울 시내 대학 기숙사와 각종 공기업·민간기업 연수원, 구청 시설 등 수도권 시설이 숙소로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폐영식 전날인 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 역시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세만금 야영지에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차 거처 제도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 이미 카눈이 진로를 변경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를 접한 뒤 ‘플랜B’ 본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 강수량이 100mm를 초과하고 거센 바람까지 불면 야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숙소를 실내로 옮기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숙소 상황과 대체 프로그램, 통역 등 행정지원 노력 등을 점검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 설명이다.

한 총리도 이날 나흘 연속 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필요한 경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혼란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연맹 및 조직위와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4일 각 부처에 잼버리대회 안전관리 지원을 주문하며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에 지시했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尹 휴가 직후 개각 없다...당분간 잼버리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직후로 접어들던 2차 개각 시점은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7일 대통령실 안팎에서 일부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잼버리만 챙겼다”며 “정국 구상의 결과로 개각이 급물살을 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구두로 건의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임 문제만 머지않은 시기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 법무부로부터 공복절 특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인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법을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물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7.5%...2주 연속 소폭 상승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59.3%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에비로 지난달 31일~이달 4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p) 올라간 37.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가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지난주

(7월 넷째주) 조사에서 반등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2%p 내린 59.3%로 2주 연속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p ↑), 부산·울산·경남(3.3%p ↑), 40대(2.3%p ↑), 보수층(2.1%p ↑)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3%p ↑), 서울(4.7%p ↑), 20대(8.3%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연합뉴스

국힘 과기특위 첫 회의 “연구비 카르텔·R&D 투자 비효율 해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연구비 카르텔’과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 등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특위 위원장(포항공대 교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더문’을 언급,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안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지칭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제 없이 (용어가) 쓰여서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하는 등 비효율성을 찾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